

## 동반자 사목을 위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중심으로\*

윤만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들어가는 말

1. 동반자 사목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 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찾는 동반자 사목의 필요성
  - 1.2. 청소년 이해에 따른 동반자 사목 전환의 필요성
  - 1.3.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천하는 동반자 사목
2. 동반자 사목을 위한 동반의 이해와 역할
  - 2.1. 동반의 의미
  - 2.2. 동반을 위한 기본 요소
  - 2.3. 동반의 역할과 목적
3. 동반자 사목 증진을 위한 실천적 환경
  - 3.1. 교육적 현존을 통한 개별적 동반 환경 구축
  - 3.2. 교육·사목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동반
  - 3.3. 대중 청소년 사목을 지향하는 환경 조성

나가는 말

\* 본고는 2023년 4월 29일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와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 “지쳐 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에서 발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인식은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위기론<sup>1)</sup>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위기의식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sup>2)</sup>와 같은 청소년들의 수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한국 사회의 외적 요인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sup>3)</sup>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sup>4)</sup> 청소년 사목에 대한 위기의식을 한층 부각시키며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의식하게 한다.

하지만 청소년 사목의 위기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이 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일 것이다. 즉, “비합리성이나 다원성”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추구하는 현대의 청소년들<sup>6)</sup>에게 진부한 전통적 방식의 접근이 청소년 사목의 위기적 상황을 불러온 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과도한 입시경쟁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인자가 되고 있음<sup>7)</sup>은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접근이 달리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방향이나 사목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소극적인 재정 지원 등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교회 내의 부정적 환경 역시 청소년 사목을 위기

- 
- 1) 이미영, 「생명력 있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전망」, 『우리신학』, 4(2005), 183.
  - 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월 대비 2022년 11월 출생률은 4.3% 감소하였으나, 사망률은 6.1%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감소의 뚜렷한 정황을 보여 준다. 통계청, 『2022년 11월 인구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3년 1월 26일), 2-3.
  - 3)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과 새로운 희망: 종교 사회학적 관점」, 『신학전망』, 212(2021), 205.
  - 4) 2021년 주일학교 학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초등부 36.2%, 중등부 25.4, 고등부 11.3%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분석 보고서』, (2022), 54.
  - 5)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신학전망』, 159(2007), 104.
  - 6) Ibid.
  - 7) Ibid., 107-108.

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제시된다.<sup>8)</sup>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과 더불어 총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사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위원회는 8년 6개월의 수고의 결실로 2021년 5월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청소년 사목이 지닌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왜냐하면 현대 청소년들의 특징이나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사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침서』는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목의 정의와 목적<sup>9)</sup>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실천적 방법<sup>10)</sup>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 사목이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사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향할 것을 요구한다.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은 ‘동반하는 사목’이다. 이는 청소년 사목이 사목자 중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목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목의 주체자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침서』는 변화된 사목 형태로 제시하는 ‘동반’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총 79회 사용하면서 동반을 통한 사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즉, “‘동반’(40회), ‘청소년 사목 동반자’(8회), ‘교육적 동반’(5회), ‘교육적 동반자’(3회), ‘동반자적 사목’(1회)’등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용어들은, 청소년 사목에 있어 ‘동반의 역할을 강조할 뿐 아니라, 동반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안타깝게도 동반에 대한 용어가 한국교회 내에서 사용된 시점<sup>12)</sup>은 그다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8)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종교교육학연구』, 31(2009), 154.

9)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 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22-23항. 사목자인 주교와 사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을 “청소년이 청소년과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사도적 활동”으로 정의한다.(24항) 이를 위해, 친교와 공동 책임감을 체험하도록 장려하고, 가정 공동체와 긴밀히 연대하며 복음화에 힘쓰는 통합적 사목을 지향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7, 18항.

10) Ibid., 47-53항.

11)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신학전망』, 219(2022), 149.

12) ‘동반’의 용어는 “젊은이, 신앙 그리고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2018 10월 3일-28일)를 준비하는 「예비문헌」(2017년 1월 13일), 「의안집」(2018년 6월 19일), 그리고

반'이 사목에 적용되고 활용된 성공적인 사례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동반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동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전이 될 것이며, 동반의 개념을 사목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하지만 교회보다 훨씬 앞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한국 천주교회가 추구하는 '동반'의 개념과 실천에 있어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반자의 역할이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동반자'의 특징을 소개하며 동시에,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목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의 사목적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사목이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동반자 사목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동반의 의미와 동반의 요소 및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반자 사목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하는 환경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사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극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동반자 사목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 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찾는 동반자 사목의 필요성

2021년 5월 발간된 『지침서』를 통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 위원회는 동반자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청소년 사목은 '동반자' 사목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반'이라는 단어는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동반을 사목에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익숙하지 않은 탓에 여러 시행착오를 예측하게 한다. 반면, '동반'의 용어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동반을 청소년 사목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사목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동반과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sup>13)</sup>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동반의 활용이나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

---

시노드 이후 발행된 「최종문서」(2018년 1월 10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은 청소년 사목을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는데 긍정적 자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의 개입 모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한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다.”<sup>14)</sup> 청소년동반자는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다중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같은 관점은 개별 청소년 특성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며, 지리나 환경적 상황으로 인하여 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sup>15)</sup> 나아가, 개인의 태도와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적 접근을 통해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sup>16)</sup> 이처럼 청소년동반자는 대상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뿐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에 개입하여 지역 사회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sup>17)</sup>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반자들은 비록 근무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서 기쁨을 체감하였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변화된 청소년들을 보면서 보람과 소명 의식을 느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경험을 하였다.<sup>18)</sup> 무엇보다 청소년동반자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생기를 회복

---

1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7호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49조 4항에 따라 규정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장 “위기 청소년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5장 1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단체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접속일: 23. 11. 28).

14) 오경자·배주미·양재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2009, 1), 3.

15) 김정남, 「청소년 동반자의 활동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8(2016, 3), 512-513.

16) 오경자·배주미·양재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3.

17) 김정남, 「청소년 동반자의 활동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512-513.

18) Ibid., 512-513.

하는 기회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지루하고 무의미한 현실적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결심을 세우게 되었다.<sup>19)</sup> 결국, 청소년동반자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기회를 얻었으며,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동반자에 참여하는 청소년동반자 수는 2005년 223명에서 출발하여 2008년 16개 시·도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1,30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은 청소년은 2008년 14,510명에서 2016년 35,71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sup>20)</sup> 이 같은 결과는 동반자 프로그램의 순기능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결국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이 같은 긍정적 역할은 비록 청소년 사목의 대상과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반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즉,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목이 지향하는 동반자 사목에 적용할 동반의 실천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동반의 형태가 사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공하고 있음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한국 천주교회에 동반자 사목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 1.2. 청소년 이해에 따른 청소년 사목 전환의 필요성

한국 천주교회는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2000년대 초부터 청소년 사목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연구자들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사목의 위기적 요소는 교회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외적 요인으로는 학업과 관련한 물리적·심리적 요인이나 물질적 가치에 따른 신앙 가치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교회 내적요인은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신앙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 학생들의 성당 내 사용 공간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들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요인들을 구분

---

19) Ibid., 512-513.

20) Ibid.

해서 제시하면, 교회 밖 요인들은 무신론적 문화, 신자유주의, 반생명적 문화에 기인하는 철학·신학적 측면과 대학 입시나 취업과 같은 제도·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회 안 요인들은 프로그램이나 교수 방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과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전략, 교사나 학부모, 사목자의 역량과 관련되는 지원 조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sup>22)</sup> 하지만, 다양하게 구분하여 제시한 청소년 사목의 위기 요인은 청소년들의 현실적 상황과 작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23)</sup> 나아가, 이 같은 현실적 상황은 청소년 사목이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환경뿐 아니라, 생물학 및 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함으로써<sup>24)</sup> 청소년 사목이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청소년 사목이 청소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할 당위성은 가톨릭교회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역사적 변천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하는 사목 활동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가톨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sup>25)</sup>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신앙관이 미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이 신앙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이 된다. 결국, 청소년들을 신앙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 주기 위하여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리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sup>26)</sup> 그러나 신앙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향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12항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 및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청소년들이 사도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

21) 이미영, 「생명력있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전망」, 207-208.

22)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54-155.

23)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04-108.

24) 신동윤·박명섭·김영구,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의미: 가톨릭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2018), 402-413.

25) 이진옥, 「가톨릭 교회 문헌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 상의 변화: 한국 가톨릭 교회 청소년 사목의 재고(再考)를 위한 초석 연구」, 『신학전망』, 202(2018), 96.

26) Ibid., 96-97.

나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 환경에 맞춰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통한 사도직을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up>27)</sup> 이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신앙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도로서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며 보다 나은 미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초대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28)</sup>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더욱 확대된다. 즉, 청소년들은 교회와 사회의 미래요 희망이며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 개혁의 참여자로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할 것을 강조한다.<sup>29)</sup> 이는 청소년들을 “이미 교회의 능동적 구성원”<sup>30)</sup>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혀 준다. 따라서 교회는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세상 안에서 복음화를 실천하는 “신앙의 길잡이”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sup>31)</sup>

청소년들을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이고 참여적 존재로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목의 주체이고 성인과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의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청소년 사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기에 이른다.<sup>32)</sup> 이 같은 동반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실패나 좌절을 극복하고 그들이 지닌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나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향한다.<sup>33)</sup>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교회의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전환을 요청하며 청소년 사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안

27)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평신도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455.

28) 이진옥, 「가톨릭 교회 문헌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 상의 변화: 한국 가톨릭 교회 청소년 사목의 재고(再考)를 위한 초석 연구」, 102.

29)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46항.

30) 베네딕토 16세,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104항.

31)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106항.

32)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60.

33) 김영훈, 「프라치스코 교황의 청년 이해: ‘인quietudine’(Inquietudine)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2(2012), 137.



타감게도, 보편 교회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시각은 여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수동적이며 사목의 대상자’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사목 위기의 근본 원인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 천주교회는 『지침서』를 통해 보편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도전적인 환경에서 청소년 사목을 정의하며 청소년 사목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침서의 이 같은 정의는 청소년 사목의 접근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사목의 방향임을 알려 주고 있다.

교회가 청소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 청소년과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사도적 활동을 청소년 사목이라 정의합니다.<sup>35)</sup>

### 1.3.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천하는 동반자 사목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정신을 계승하는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의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교황청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언급한 용어이다.<sup>36)</sup> 이 용어는 2018년에 개최된 청소년들의 시노드라고 일컬어지는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되었고 현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sup>37)</sup>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이 과정은 교회가 청소년 사목뿐 아니라 교회 사목 전반에서 ‘함께 걷는 길의 정신’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sup>38)</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교회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였다.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

34)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04-108; 신동윤·박명섭·김영구,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의미: 가톨릭청소년을 중심으로」, 402-409;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54-155.

35)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4항.

36)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 3.

37) 오세정, 「청소년 사목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 청소년 사목, 복음화, 토착화,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가톨릭교육사목연구』, 2(2022), 186.

38) 명형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종말론적 교회론의 연속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노달리타스」, 『신학전망』, 218(2022), 66.

회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한 모든 이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인식시킴으로서, 공의회 그 자체가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sup>39)</sup> 이는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으로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친교를 통하여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임을 일깨운다.<sup>40)</sup> 특히 타자와 상호 관계를 맺어 가며 공동적인 것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 ‘친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의 친교를 지향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들 사이에 친교를 이루며 시노달리타스를 실현시키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sup>41)</sup> 이 같은 친교의 정신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경험하며 서로 유기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고,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사명에 책임을 다함으로서 교회를 증언하는 “능동적 주체자”<sup>42)</sup>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성직주의로 구조화된 사목 현장에 대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구조화된 성직주의는 단지 성직자의 독점적 관리 구조뿐 아니라, 성직주의의 정형화를 인정하는 ‘성직자 의존도’를 지속시키며 교회의 복음 정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사목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사목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는 교회 내부의 요인 중 사목자의 자질 부족이나 교회의 권위주의적 분위기는 청소년 사목의 비전이나 전략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sup>44)</sup>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제의 ‘독점적인 결정권’이나 ‘권위주의적 하향식 태도’ 그리고 ‘상상 사목’<sup>45)</sup>과 같은 모습은 청소년 사목을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사제들의 겸손이나 탈권위적인 자세는 신뢰와 친교를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sup>46)</sup>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 사목이 시노달리타

39)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8-9.

40)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6항. 이하 2021년 한국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동합의성 대신 『시노달리타스』로 표기한다.

41)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13.

42) 『시노달리타스』, 55항.

43) 강신숙, 「포스트 팬데믹과 시노달리타스의 향방: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5(2021), 145.

44)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54-155.

45) ‘상상사목’은 교구의 사목 지침에 따른 공동체적 사목을 지향하기보다는 사목자 자신의 개별적인 상상과 직관에 따라 청소년 사목을 즉흥적으로 행하는 사목 형태를 말한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항.

스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나이갈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려는 청소년 사목의 접근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의 실천이며 시대적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다.

## 2. 동반자 사목을 위한 동반의 이해와 역할

### 2.1. 동반의 의미

‘동반’은 ‘뺨을 쪼개어 함께 나누는 것’(com + pan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나,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하는 이의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가는 커다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sup>47)</sup> 이 같은 동반의 의미는 루카 복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24,13-35)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도록 도와주셨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발견하고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이러한 방식은 동반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동반의 총체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동반의 이러한 과정은 “만남, 질문과 경청, 가르침, 성찬례, 사명이라는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48)</sup>

우선, ‘만남’은 동반의 출발점이며 조건이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공존을 의미하며 주체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전제 조건이다.<sup>49)</sup> 만남은 함께하려는 이의 의지이며 먼저 다가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으로 인하여 동반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 단계는 ‘질문과 경청’의 단계이다.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은 질문과 경청을 통해 동반의 여정이 지속되도록 이끈다. 질문은 듣

46) 정규현·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20-24.

47) 교황청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Document Finale),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1(2020), 192항. 이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로 표기한다.

48)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137.

49) Ibid.

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에 질문자의 경청을 요구한다. 질문자의 귀 기울임의 자세는 서로의 만남이 자유롭게 되도록 이끌며 듣는 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sup>50)</sup> 관계에 변화를 주어 동반의 과정이 연속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가르침’의 단계이다. 질문과 경청으로 형성된 자유로운 만남은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영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며 삶의 도전으로 지친 소멸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재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동반의 네 번째 단계는 동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례’이다. 제자들은 성찬례를 통해 그동안 함께했던 분이 바로 스승 예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는 제자들에게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성찬례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자리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반의 마지막 단계는 ‘사명’에 대한 실천이다. 영적 암흑에서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한 제자들은 은총과 신비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음 선포의 사명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반은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동반의 목적이 영적 체험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복음적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데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2. 동반을 위한 기본 요소

루카 복음을 통해 살펴본 동반의 단계들은 동반자 사목을 지향하는 청소년 사목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동반자 사목으로 향하기 위해 동반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요소들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한다. 특히, 동반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동반자 사목의 질적 부분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동반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동반의 전제 조건은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

50)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6항.

년 사목의 위기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하였다면,<sup>51)</sup> 현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극복하며 동반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같이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무쌍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청소년 사목 방향을 제시하는 현실적 지표가 된다. 또한, 현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영적 가치 및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인식하려는 태도<sup>52)</sup>는 청소년 사목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청소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시대적 징표를 읽으려는 교회의 의지<sup>53)</sup>이며, 청소년 사목에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목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동반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다가감”<sup>54)</sup>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동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다가감은 동반자가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그들을 환대하는 사랑의 표현이 된다.<sup>55)</sup> 따라서,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함에서 출발하는 다가감은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출발점이 되며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 즉, 다가감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청소년동반자’ 역할처럼, 동반자들이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도록 이끌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다가감을 통해 마련된 만남의 기회는 동반자와 동반받는 이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로서 동반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며,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동반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경청’이다. 경청은 ‘다가감’으로 마련된 동반의 시작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 신뢰를 다져 가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경청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관계가 신뢰로 이어지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51)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04-108.

52) 신동윤·박명섭·김영구,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의미: 가톨릭청소년을 중심으로」, 409-414.

53) 프란치스코, 권교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39-41항.

54)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9항.

55) 윤만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돈보스코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60(2022, 2) 102-104.

경청의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표지가 되며 인격적으로 동등한 만남이 되게 한다.<sup>56)</sup> 동반자의 이 같은 자세는 동반받는 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할 기회를 마련하며 필요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열게 한다. 그래서 동반자가 동반받는 이와의 상호작용이 외적인 부분을 넘어서 내면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반받는 이의 영적 삶의 영역에 합리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개입하도록 이끌어 주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경청은 동반자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내하며 들어 줄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요청한다.<sup>57)</sup> 이는 동반자 스스로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른 경청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음을 일깨운다.<sup>58)</sup>

마지막으로 동반을 위한 기본 요소는 ‘친절한 사랑’이다. 돈 보스코 교육학의 구성 요소인 친절한 사랑은 동반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천이다. 친절한 사랑은 온유함, 자비심, 관대함, 상냥함을 포함한 사랑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마음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힘이다. 친절한 사랑은 동반자가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스승, 친구로 다가가게 한다.<sup>59)</sup> 때문에 친절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일깨우는 친밀함의 언어, 관대하고 친근하며 실질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sup>60)</sup>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온유한 사랑의 언어는 긴장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며 동반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동반받는 이가 동반자의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sup>61)</sup> 청소년들이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며 영적 삶으로 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반의 근원적 요소라 할 수 있다.

56) Ibid., 100.

57) 정규현·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20.

58)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46항.

59)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159.

60)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1항.

61)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159.

### 2.3. 동반의 역할과 목적

청소년 사목에서 동반의 역할은 “청소년이 청소년의 복음화와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sup>62)</sup> 이를 위해, 동반자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이 마음을 개방하여 현실적인 상황과 도전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친절한 사랑을 통해 그들이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동반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올바르게 식별할 자유를 부여하고 식별된 결과를 잘 실천하도록 수단을 제공하며, 그들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sup>63)</sup> 즉, 청소년 사목에서의 동반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목의 주체로서 전인적 성장을 이루도록 안내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닌다.

동반의 이 같은 목적은 동반자가 청소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교육적이며 영적 동반자가 되도록 요청한다. 무엇보다,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눈을 뜨게 하며 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돕는다.<sup>64)</sup> 교육적 동반은 신앙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역사를 깨닫도록 도와주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종교적 실천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앙에 맞들이며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sup>65)</sup> 이러한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판단 기준이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복음의 힘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고 신앙을 깊이 있게 체험하도록 이끈다.<sup>66)</sup> 한편 영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발견하는 부르심을 자유로이 식별하고 선택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성소를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 동반의 과정은 자유를 통해 발견한 진리에 응답하도록,<sup>67)</sup>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인식하며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별을 통해 발견한 부르심은 하느님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

62)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4항.

63)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46항.

64) 최원모, 「현대 청소년 사목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160.

65) Ibid., 160-161.

66)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4항.

67)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73-74항.

도록 초대된 성소로서, 다양한 방식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적 징표임을 알게 한다.<sup>68)</sup>

그러므로 교육적 동반과 영적 동반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적 삶의 방식을 신앙을 통해 재인식하여, 내면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연결 짓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현실 안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주체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회복하는 이들이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sup>69)</sup>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첫 선포(kerygma)를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결심을 세우도록 안내된다.<sup>70)</sup> 이처럼 청소년 사목이 지향하는 동반자의 사목은 복음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삶과 괴리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동반하는 것이며,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동반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 3. 동반자 사목 증진을 위한 실천적 환경

청소년 사목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martyria)하며 청소년 사도가 되도록 양성할 뿐 아니라, 전례(liturgia)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친교(koinonia)를 이루고 사회 공동선에 봉사(diaconia)함으로서<sup>72)</sup>,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즉, 청소년 사목의 본질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써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소의 발견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도록 청소년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반자의 사목을 증진시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실천적 환경은 ‘교육적 현존을 통한 개별적 동반 환경 구축’, ‘교육·사목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동반’ 그리고 ‘대중 청소년 사목을 지향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68) Ibid., 84항.

69)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7항.

70) Ibid., 28항.

71) 최원모, 「현대 청소년 사목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158-159.

72)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8-32항.



외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3.1. 교육적 현존을 통한 개별적 동반 환경 구축

청소년 사목이 동반자 사목으로 변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우선적인 환경은 교육적 현존이다. 교육적 현존은 동반자 사목의 가장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현존은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교육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들과 교육적 관계를 맺게 하는 수단이 된다. 교육자는 함께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다 깊이 알게 되며 그들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물리적 현존을 넘은 교육적 현존은, 청소년의 심리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교육자가 그들 가운데 현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는 결과를 얻게 한다.<sup>73)</sup> 하지만 교육적 현존은 교육자의 인내, 희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열정을 필요로 한다.<sup>74)</sup> 희생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자의 현존은 친밀하고 가족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 현존은 청소년들이 교육자에게 마음을 개방하여 소통하게 하고 교육자의 사랑을 느끼고 신뢰하게 만드는 통로라 할 수 있다.<sup>75)</sup> 이 같은 교육자의 현존은 심리적·정신적 혼란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현혹되는 도덕적 일탈 대신 도덕적 가치를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며,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그릇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sup>76)</sup>할 수 있는 처방이 된다. 이러한 교육적 현존은 교육자가 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하여 충고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청소년들의 삶을 격려하고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을 극복하도록 응원<sup>77)</sup>하여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현존은 청소년들의 영적 동반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교육자의 현존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는

73)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162.

74) R. Biesmans, “Assistance: The Essence of Don Bosco’s Preventive System(1876-1884) (PART I)”,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6(2015, 1), 87.

75) 윤만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돈보스코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107.

76) R. Biesmans “Assistance: The Essence of Don Bosco’s Preventive System(1876-1884) (PART II)”,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6(2015, 2), 146.

77) Ibid., 151-158.

교육자가 청소년들을 영적 삶으로 안내할 기회를 얻게 한다. 영적 동반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 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sup>78)</sup> 따라서 교육적 현존을 통해 쌓인 신뢰나 우정은 서로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적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킨다.<sup>79)</sup> 교육적 현존에서 출발한 영적 동반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도록 이끈다.<sup>80)</sup> 이는 영적 동반을 통해 청소년들이 복음적 가치를 발견하고 내적 식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으로 향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현존은 청소년들이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영적 동반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사명에 충실하도록 동반의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 3.2. 교육 · 사목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동반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의 실천에 있어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화를 수행하는 공동체적 특징”<sup>81)</sup>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청소년들의 복음화에 동참”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sup>82)</sup>, 청소년 사목이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더라도 현재 마주하는 사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동반자 사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적 현존을 통한 개별적 동반뿐 아니라 교육 · 사목 공동체의 구성을 통하여 사목적 환경을 이루어 가야함을 강조한다. 사목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은 개별적인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기에 사목의 방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목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내면화되고 사목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공동의 목표로

78) J. Boenzi, “What is Salesians in Don Bosco? Francis de Sales in both his personal faith and his pastoral-pedagogical practice”,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7(2016, 2), 175.

79) 살레시오 청소년사목부, 『젊은 살레시오 회원과 동반: 방향과 지침』, 양성위원회·윤만근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22), 72항.

80) 앙리 코위아니에,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우정의 성인』, 안용렬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1), 243.

81)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47항.

82)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53항.

나아가게 하는 교육과 사목 행위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sup>83)</sup> 이는 교육·사목 공동체의 역할이 동반자 사목을 지향하는 청소년 사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적 요소임을 깨닫게 한다. 무엇보다 사목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라토리오(Oratorio)’<sup>84)</sup>를 통해 청소년 복음화의 사목적 결실을 거두었던 돈 보스코의 교육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라토리오’는 교육 환경이나 신앙생활로부터 떨어져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돈 보스코가 구축한 교육·사목 시스템으로, 초기에는 오늘날의 주일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였으나, 후기에는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집’, 기술과 학업을 습득하는 ‘학교’, 교리를 배우고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성당’ 그리고 놀이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sup>85)</sup> 돈 보스코는 오라토리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sup>86)</sup> 오라토리오에는 역할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돈 보스코의 교육적 방식과 가치관<sup>87)</sup>을 바탕으로 오라토리오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통해 친밀하고 가족적인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는 교육·사목 공동체가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을 통해 성소를 발견하고 이를 식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적 동반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교육·사목 공동체는 공동체적 동반을 실천하기 위해 친밀하고 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사목 공동체의 구성원은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사목자나 사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들이 참여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sup>88)</sup> 특히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

83) 윤만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돈보스코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111.

84) 오라토리오(Oratorio)는 라틴어 ‘orare(기도하다)’에서 출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적 의미(oratorium)도 포함한다.

85)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164.

86) Salesian Youth Ministry Department,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Roma: Editrice, 2014), 185-186.

87) 돈 보스코의 교육을 ‘예방교육(the preventive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는 이성(reason), 종교(religion), 사랑(loving-kindness)이며, 이를 실행하는 실천적 방식은 교육적 현존 혹은 교육적 동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씨스턴스(assistance)’의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

88) Salesian Youth Ministry Department,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116-118.

정 구성원의 참여는 청소년 사목이 마주한 도전을 이겨 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이 복음화의 주체가 되는 데 첫째 협력자로서 교육·사목 공동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으로 구성된 교육·사목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청소년 사목의 가치와 방향을 이해하여 교육과 복음화 실현을 위한 환경을 건설하고,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체험하고 신앙으로 나가도록 동반자 사목을 활성화하는 환경적 요소가 된다.

### 3.3. 대중 청소년 사목을 지향하는 환경 조성

청소년 사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본당 주일학교 청소년 수의 감소를 근거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위기론을 주장한다.<sup>89)</sup>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 사목이 곧 “본당 주일학교”<sup>90)</sup> 이거나 “교리교육과 같은 지적 교육”<sup>91)</sup>이라는 매우 제한된 개념으로 청소년 사목에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사목이 본당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할 뿐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sup>92)</sup>를 위한 사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게다가 주일학교에 참여한 청소년의 출석수로 청소년 사목의 결과를 평가하는 잣대는 현재 청소년 사목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희망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권고를 통해 청소년 사목은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며 그들이 신앙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sup>93)</sup> 이는 청소년 사목의 방향이 본당이나 교회 내

89)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97-98; 이미영, 「생명력있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전망」, 183-185; 이진옥, 「가톨릭 교회 문헌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 상의 변화: 한국 가톨릭 교회 청소년 사목의 재고(再考)를 위한 초석 연구」, 93.

90) 조한수,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 『사목연구』, 15(2005), 34에서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50 재인용.

91) 이금재, 『청소년기 신앙성숙을 위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실패와 개선방안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23에서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51.

92)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3항. ‘소수를 위한 엘리트’ 사목은 선별된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받지 못한 청소년들과 경계를 짓는 것이다. 이 같은 사목의 방향은 청소년 사목이 완전함을 지향하도록 안내하여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1-232항.

93)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4항.

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뻗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중 청소년 사목은 현재 청소년 사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며, 교회가 지닌 본질적인 선교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중 청소년 사목은 가난하거나 소외되는 청소년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을 포용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삶의 자리에 접근하여 그들이 공동선에 참여하도록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사목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94)</sup>

그러므로 대중 청소년 사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수를 위한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모든 이를 포괄하는 대중을 지향하여야 하며, 윤리적인 규칙으로 편협한 인상을 심어 주는 대신 모든 청소년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관대한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대함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무신론자를 위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며, 모든 이들이 초대받을 수 있는 열린 방식이어야 한다.<sup>95)</sup> 이런 면에서, 제15차 세계주교대의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청소년 사목의 모델로 제시하며, 청소년 사목이 “존중하는 여정”, 지침 없이 안내로서 함께 가는 “공감하는 여정”<sup>96)</sup>이 될 것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대중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 즉, 본당을 비롯하여, 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직업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뿐 아니라, 교호 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배제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이끈다.<sup>97)</sup> 대중 청소년 사목의 이 같은 특징은 “성령께서 이미 젊은이들 가운데에 씨 뿌려 놓으신 은사들”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성령의 활동을 신뢰하며 청소년들을 동행하도록 격려한다.<sup>98)</sup> 그러나 대중 청소년 사목의 접근은 개별적 동반과 더불어 공동체적 동반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사목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사목 공동체의 구성은 청소년 사목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을 실현하는 데 구체적인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복음화를 위한 교육적이며 사목적인 계획<sup>99)</sup>은 각 기관에 대한 청소년 사목의 목표를 명

94)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1항.

95)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3항.

96)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4항.

97) Salesian Youth Ministry Department,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185-261.

98)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0항.

99) Salesian Youth Ministry Department,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145.

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청소년 사목이 동반자 사목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구체적인 전략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사목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청소년 사목을 위한 환경 조성은 청소년 사목이 동반자 사목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서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나가는 말

청소년들이 종교를 떠나도록 이끄는 세속화의 흐름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인 사안은 한국 천주교회가 마주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위기의식을 극대화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은 내부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며 내부적 환경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발간한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응답이며 새로운 세대에 대한 사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 천주교회는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통하여 청소년 사목이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며, 동반자 사목이야말로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청소년 사목이며 교회가 직면한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향임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사목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교회 밖 요인과 교회 안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회 밖 요인은 국가 차원의 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반자 사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회 안 요인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적 현실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현 교회에서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 정신 안에서 동반자 사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반자 사목의 적용에 필요한 동반자의 자질과 요소 및 그 역할을 살펴보고, 동반자 사목을 촉진할 필수적인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동반자 사목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결국 동반자 사목이 지닌 특징은 청소년 사목을 구성하는 “청소년을 향한(to youth), 청소년에 의한(by youth), 청소년을 위한(for youth), 청소년과 함께(with youth)”<sup>100)</sup>의 원칙을 통합한 접근 방법으로써, 청소년 사목의 주체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복

100)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168.

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식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식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동반자 사목은 단지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접근 방식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보편 교회가 요청하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의 실천이며,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려는 “새 복음화”<sup>101)</sup>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

101) 박정우, 「새 복음화의 실천 원리로서의 사회 교리와 한국교회 현황」, 『기독교신학과사상』, 70(2012), 233-234.

## 참고문헌

- 강신숙, 「포스트 팬데믹과 시노달리타스의 향방: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5(2021), 130-1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접속일: 2023. 11. 28)
-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 박준양·안소근·최현순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교황청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Document Finale)」,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61(2020), 177-303.
- 기경진·류미숙, 「청소년동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학위논문과 KCI 등재지 게재논문(2006~2018)」, 『교육과학연구』, 21(2019, 1), 213-234.
-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과 새로운 희망: 종교 사회학적 관점」, 『신학전망』, 212(2021), 200-240.
- 김영권, 「현대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신학전망』, 159( 2007), 96-127.
- 김영훈,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년 이해: ‘인quietudine’(Inquietudine)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2(2012), 113-154.
- 김정남, 「청소년 동반자의 활동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8(2016, 3), 511-531.
- 명형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말론적 교회론의 연속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노달리타스」, 『신학전망』, 218(2022), 53-97.
- 박정우, 「새 복음화의 실천 원리로서의 사회 교리와 한국교회 현황」, 『가톨릭신학과사상』, 70(2012), 233-277.
- 베네딕토 16세,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살레시오 청소년사목부, 『젊은 살레시오 회원과 동반: 방향과 지침』, 양성위원회·윤만근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22.
- 손보향·유영달, 「상담수강명령 청소년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 『교육치료연구』, 5(2013, 2), 113-128.



- 신동윤·박명섭·김영구,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의미: 가톨릭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2018), 395-417.
- 오경자·배주미·양재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2009, 1), 1-17.
- 오세정, 「청소년 사목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 청소년 사목, 복음화, 토착화,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가톨릭교육사목연구』, 2(2022), 175-209.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9),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8.
- 윤만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돈보스코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학연구』, 60(2022, 2), 89-119.
- \_\_\_\_\_,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신학전망』, 219( 2022), 131-174.
- 이금재, 『청소년기 신앙성숙을 위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실패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 이미영, 「생명력있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전망」 『우리 신학』, 4(2005), 183-214.
- 이선민·양지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49(2016), 8-49.
- 이진옥, 「가톨릭 교회 문헌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 상의 변화: 한국 가톨릭 교회 청소년 사목의 재고(再考)를 위한 초석 연구」, 『신학전망』, 202(2018), 91-127.
- 정규현·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3-42.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평신도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0, 438-478.
- 조한수,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 『사목연구』, 15(2005), 32-59.
- 최원모, 「현대 청소년 사목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144-174.
- 최준규,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종교교육학연구』, 31(2009), 49-174.
-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 2-47.
-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14.
- \_\_\_\_\_,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코위아니에, 앙리,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우정의 성인』, 안웅렬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1.
- 통계청, “2022년 11월 인구동향”, 통계청 보도자료(1월 26일), 2023.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분석 보고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Biesmans, R., “Assistance: The Essence of Don Bosco’s Preventive System (1876-1884) (PART I)”,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6(2015, 1), 59-87.
- \_\_\_\_\_, R., “Assistance: The Essence of Don Bosco’s Preventive System (1876-1884) (PART II)”,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6(2015, 2), 141-187.
- Boenzi, J., “What is Salesians in Don Bosco? Francis de Sales in both his personal faith and hi pastoral-pedagogical practice”, *Journal of Salesian Studies*, 17(2016, 2), 231-256.
- Salesian Youth Ministry Department, *Salesian Youth Ministry: Frame of Reference*, Roma: Editrice, 2014.

## 동반자 사목을 위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중심으로

윤만근

본 연구는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중심으로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천주교회보다 앞서 국가차원에서 시행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동반의 방식과 적용 결과를 제시하고 동반자 사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 교회에서 제시하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강조하며 동반자 사목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동반자 사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반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동반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현대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이해’, ‘다가감’, ‘경청’, ‘친절한 사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반자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교육적 동반과 영적 동반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반자 사목을 지향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환경적 요소는 사목자와 교육자의 교육적 현존을 통한 ‘개별적 동반 환경’, ‘교육·사목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동반 환경’, 그리고 ‘대중 청소년 사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소년 사목에 요구되는 실천적 요소들은 시대적 요구의 응답이며,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향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사목으로 나아갈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동반자 사목, 교육적 현존, 교육·사목 공동체, 대중 청소년 사목

**The Practical Elements of the Youth Ministry  
for Ministry of Accompaniment:**  
Based on the *Pastoral Framework of Youth Minist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Yoon, Man-Keun

This study navigated the practical elements of youth ministry, which help transition to the Ministry of Accompaniment based on the “*Pastoral Framework of Youth Ministry of the Korea Catholic Church*.” The study addressed the needs of the Ministry of Accompaniment b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Youth Companion’ program operated by Korean government. Moreover,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inodalitas” spirit after identifying the issues in Korea Youth Ministry. In doing so, the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accompaniment and highlighted the essential elements that animate the Ministry of Accompaniment. These elements inclu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young people,’ ‘approach,’ ‘listening,’ ‘loving-kindness.’ Then, it elucidated the role and purpose of educational and spiritual accompaniment. Consequently, the study proposed environmental elements to put the Ministry of Accompaniment into practice. There elements include ‘personal accompaniment’ through educational presence, ‘community accompaniment’ fostered by an educative-pastoral community, and a popular youth ministr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is approach could be a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the modern age, providing a new strategy that allows the Youth Ministry to be with the young, for the young, of the young, and by the young.

**Key Words:** Pastoral Framework of Youth Ministry, ministry of accompaniment, educational presence, educative-pastoral community, popular youth ministry

---

논문 투고일	2023년 10월 25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2월 2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